

07. 낙동강 방어선의 공방전

낙동강 방어선 및 방어작전 개념

1. 낙동강 방어선 형성

7 월말 상황

전 전선에서 북한군의 압력으로 위기상황 조성

북한군 진출 (7 월 25 일 경: 순천 - 거창 - 상주 - 영덕을 연하는 선)

중부전선 1,13,15 사단: 소백산맥 -> 문경, 함창, 상주

8,12 사단: 풍기, 영주 -> 안동, 제 2,3 사단: 추풍령 -> 김천

동해안: 제 5 사단 -> 영덕

서남부지역: 4 사단 -> 고령, 제 6 사단 출현 -> 진주 전면

• 7.24 전투력 복원(싸움 준비를 다시 하는 것)중인 미 제 24 사(29 연 배속)진주 - 김천 선 투입

제 27 연대(7.30), 미 제 5 전투단(7.31, 예정)증원하였으나 진주 함락(7.31)

특단의 조치 요구: 병력 절약으로 서남부 지역 위기 대처

전 부대 낙동강 방어선 철수 조치(8 월 1 일): 설치 완료 (8 월 4 일)

*미 제 25 사단: 전용 부대로 확정(정면의 북한군 제 15 사단 약체로 평가)

낙동강 방어선 (워커 라인, 부산 교두보)

*남해안 - 마산 - 낙동리(160km) - 청송 - 영덕 - 동해(80km), 총 240km

낙동리 - 동해 (120km) **한국군** 담당

*13 일 부, Y 선(다부동-보현산 - 기계 -포항)으로 철수 조치

한국군 80km 담당 총 200km 방어선 형성

*마산 - 남지 (80 km): 산악지형, **한국군** 담당 지역 : 횡격실(옆으로 된 것)/종격실: 앞으로 된 것/ 공격하기는 종격실이 좋고 방어하기는 횡격실이 좋다) 산악지형

(미국군이 맡은 선:y 선, 한국군이 맡은 선:x 선이라고 생각)

당시의 분위기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 원수: “더 이상 밀리면 해상으로 철수 할 수 밖에 없고, 해상 철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8 군 사령관 워커 '현지 사수(Stand Or Die Defense) 전투 의지' 강조

“우리는 지금 시간을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어떠한 명목 하의 후퇴도 허용할 수 없다. 우리 뒤에 더 이산 물러설 수 있는 후방은 없다. 부산으로 후퇴한다는 것은, 사상 최대의 살육전을 의미한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 7.29 미 24 단 지휘소

✓ 개요

8.1 낙동강 동안 / 남쪽 철수

8.4 방어선 점령 완료

✓ 정면 : 240km(남북 160, 동서 80)

*사단 평균 : 미군(45km), 한국군(25-30km)

✓ 방어 개념: 기동과 역습

적의 압력이 약한 지점 병역 절약, 화력을 집중하여 방어

발달된 방사선 도로 이용 기동

*신속한 역습으로 돌파 지역 회복

✓ 방어선의 가치

한.미 연합전선 구축

천연 방어 지대 활용

내선 작전, 병력 이동 / 보급 유리

8.3 한국군 및 유엔군의 총 연장 240km 의 ‘낙동강 방어지역 형성

영동이남 무방비 상태 약 140km 정도 이걸 알고 북한군은 6 사단을 호남 우회 기동해서 진주를 먹었고 우리가 급해서 미 24 사단, 29 연대를 바로 대비해서 막았다

호남지역 우회 의미 / 영향 (미국 전쟁 지도 방침 변경)

- 금강 - 소백산맥 방어선 포기 -> 낙동강 방어선 형성
- 인천 상륙작전 부대 변경 * 미 2 사, 해병 1 여단(투입)
- 미 7 사단과 유럽 파견 예정인 미 3 사단 한국 추가 투입

7.31 진주 피탈이 되고 마산까지 피탈 되면 안되기에 북쪽에 있던 미 25 사단을 급거 36 시간 만에 240km 이동 시켜 배치하였다. -> 북한군 15 사단이 약체로 판단되어 미 25 사단을 내려 보낸 것 -> 상주 정면 간격 해소, 협조된 방어선 형성, 전선 축소(y:160, x:80) 낙동강 방어선의 이점 :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선 연결, 지형의 잇점, 하천, 횡격실 고지군, 책임지역: 한국군 - 북동, 미군 - 남서

데이비든슨 선 : 마산 - 밀양 - 언양 - 울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것)

낙동강 방어선 돌파 대비하여 최후의 방어선으로 준비(유자 철조망/ 조명 지뢰 설치

방어 편성

국토의 90% 북한군 점령

50.8-9 월 중순까지 최후의 결전

낙동강 방어선: “부산교두보” “워커라인”

한, 미군의 방어 편성

작전 책임 지역: 국군 - 동북, 미군-남서

동북: 국군 왜관 -> 1,6,8, 수도, 3 사단 배치

남서: 미국 왜관 -> 1 기병, 24,25 사단 배치

*육본, 제 8 군사령부 :대구

북한군: 동북 - 2 군단, 남서 - 1 군단 공격

방어개념

낙동강 방어선을 최후의 방어선으로 활용

미 8 군의 작전형태(개년): 지역전 -> 지역 방어로 전환(기동과 역습)

병력 배치

서남부 미군 담당(마산으로부터 미 제 25,24,1 기병 사단 순)

북동부 한국군 담당(다부동(제일 왼쪽)으로부터 제 1,6,8,수도,3 사단 순)

북한군 상황

전선 사령부(수안부), 제 1 군단 사령부(김천), 제 2 군단 사령부(안동)

낙동강 외관 기존 10 개 사단 배치, 제 7,9,10 사단 남진 조치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90% 점령, 병참선의 신장으로 보급 제한

유엔군에 비해 정대 숫자 부족, 공세종말점 징조(남한에서 대량 징집)

*공격 기세 유지

미 8 군의 방어작전 개념 (워커의 방어기조)

병력 절약 -> 예비대 편성 -> 기동 -> 역습 -> 전단 회복

방어 작전의 결정적 성공 요소: 역습

워커 장군의 관심사항

예비대 편성

예비대 투입 시간/ 투입 장소

“랜드럼(미 8 군 참모장), “오늘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예비대를 줄 수 있는가?”

2. 북한군 8 월 공세

개념

지연전(정면 공격과 후방 교란) -> 공방전(낙동강 방어선 구축/ 유엔의 공군, 해군 지원 -> 후방 침투
불가= 무조건 정면공격)

북쪽에는 2 군단 (13,1,8,12,5)/ 서쪽에는 1 군단(6,4,10,3,15)

방어 계획

✓ 유엔군 및 한국군 배치

한국군: 방어선 북측(왜관 ~ 영덕)

1 군단(8.수도): 중동부 지역

2 군단(1.6 사): 대구 북방

3 사단: 동해안

미국: 방어선 서 측면(왜관~남지 ~진해만)

미 1 기병 사단 (왜관 ~현충)

미 24 사단(거창 ~창녕)

미 25 사단(상주 ~마산)

*북한군

1 군단: 미군 정면

2 군단: 한국군 정면

북한군 8,9 월 공세 분쇄 -> 연합군 반격 주도권 확보

우리가 이겼기에 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 북한군 목표: 주공 -> 대구 지향, 영산, 밀양 방면 돌파, 경부선 차단

✓ 미국 정면: 북한군 1 군단(4 개 사단

서남 방향에서 북 6,4,10,3 사단 투입

대규모 도하작전 개시

작전결과

북한군 4 사단: 영산 진출 북한군, 미 1 해병 임시여단 역습 -> 서부 격퇴

북한군 3,10 사단: 현풍, 대구 공격, 대구 고립 시도 -> 한국군 17 연대, 미 24 사단에 의해 저지

북한군 6 사단: 마산 서부 진출 -> “킨” 특임 부대 의해 진주 쪽 격퇴

✓ 한국군 정면: 북 6 개 사단 투입 공격

8.20 북한군 왜관, 다부동, 신령, 기계, 포항선 진출(대구 점령 실패)

*다부동: 한국군 제 1 사: 미 27 연대 지원받아 북한군 3 개 사단 공격 저지

피아 전력 비교

북한군: 병력과 장비 한계점 도달

UN 군: 부산항을 통한 증원 부대 지속 증강

김일성: “ 8.15 해방 5 주년 기념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

“비행기 사냥꾼” 전법 사용

남한 출신 공산 유격대 선두공격(보급품은 노획물로)

다부동 전투

- 상황: 북한군 제 12 사단 우회 침투 기동하여 수도사단이 철수, 한국군 x 선으로 진지 조정
- 작전 지역: 대구 북방 22km 지점 위치, 횡격실 고지군(수암산-유학산-가산), 도로망(907 번, 25 번, 908:왜관-다부동)발달, 다부동 서측 낙동강 갈수기로 도섭 가능

*다부동 - 대구 종격실 능선으로 형성 및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피탈시 대구 실함 위험

→ 전투 개요

- 서측(328 고지)
 - 8.14: 북한군 다부동 서측 공격 : 328 점령
 - 8.16: 미 5 기병 328 고지 재탈환
 - 8.16: 북한군 도하기도 확인 왜관 북쪽 응단 폭격(960 톤)
 - 8.20-22: 제 15 연대 328 고지, 최종확보(9 차례 반복)
- 중앙(수암산, 유학산)
 - 제 12 연대 8.13 일 재편성 수암산, 유학산 북한군 선점
 - 8.19: 유학산 탈취
 - 8.28: 수암산 탈취, y 선 확보
- 우측(다부동)
 - 8.15: 11 연대 가산 좌측능선 철수
 - 8.17: 미 27 연대 증원(448 탈취)
 - 8.19: 27 연 448 점령, 21 일 전차전
 - 8.23: 10 연대 북한군 연대 격퇴 후 시주만 진출 y 선 확보

대구사수/다부동 전투

북한군 :1,3,8,13 사단 투입

UN 군:한국군 1 사단, 미 1 기병사단

*사단당 일일 평균 700 여명 사상자

*1 사단 수색중대 맹활약(적지중심 특수작정):장우수 소령 부인 구출, 적 군관 다수 생포 등

대구시내 공황 상태

UN 군 한국 철수 고려: 제주 혹은 일본 망명정부 구산

대구가두모병(약 5 만명): 훈련 후 1 일 귀가 시 도망병 전무

다부동 전투

한국군 제 1 사단 다부동 일대 배치 -> 동시다발적인 북한군의 공세: 유엔군의 융단폭격 실시 -> but 폭격 효과는 없음 : 북한군의 서쪽 공격 -> 개전 이후 최초의 협동작전 : 각 측의 전력 보강, 학도병 참전, 노무자의 지원 -> 8 월 21 일 저녁 다부동 계곡, 블링장 전투 : 방어지역 안정 성공

다부동 전투 의의

북한군의 공격의도 좌절(낙동강 방어선 돌파 실패)

공세 이전 발판 제공

북한군의 전력소진(공세종말점 조기 강요)

낙동강 방어선 고수의 자신감 부여

최초 한미 연합 작전 실시

연합작전 발전의 계기

한미간 상호신뢰감 형성

다부동 전투 전훈 분석(방어준칙)

철수 준비 명령 하달 지연(26 시간 전 사단 통보)

철수로 선정의 부적절

역 행군로 선택 철수

역 행군간 북한군 y 선 선점

책임구역 명시 미흡(군단)

연합작전 발전의 계기

방어간 국지경계부대 운용 미흡

사단 지휘소 및 측면 수 차례 기습 허용

왜관 북방 융단 폭격

8.16: 11:58~12:24, B-29 98 대 900 톤 폭탄 투하

왜관(67 평방 km) 근처 북한군 결정적으로 사기저하

북한군 지휘 통신체계 완전 마비

2 차 융단 폭격 피해 판정 불 분명으로 취소

8 월 공세 주요 전투

1. KEAN TF 작전 (8.7-13)

마산 정면의 위협제거

대구 정면의 압력 분산

공세행동으로 전의 고양

2. 낙동강 돌출부 작전(8.6-8.19)

Hill TF: 미 2 사 9 연대

미 27 연대, 1 해병여단

3. 동해안 지구전투(8.9-20)

3 사단 해상 철수

포항 지구 전투 사령부 창설 / 투입

브레들리 TF 영일비행장 투입

수도사단 투입 공세 행동

서남부 반격 작전

북한군의 마산 위협(부산으로 교두보)-> 킨 특수임부부대: 진주- 사천방향의 역 공격 계획-> 병력

우위 하지만 지리적인 열세 -> 북한군의 매복, 병력 차단: 미군의 참패, 킨 작전의 중지 -> 미군의 최초

공격작전: 패배하였으나 마산을 수호

KEAN TF 작전

- ✓ 북한군: 6 사단 (제 13,14,15 연대), 83 기연
- ✓ 유엔군: 미 제 25 사단(-1), 미 5 연대 전투단, 미 해병 5 연대, 한국군 민부대, 김성은 부대(해)
- ✓ 작전 목표: 대구에 대한 압력 분산, 마산 정면의 북한군 격멸, 방어선 추진(진주고개-사천),
공격작전의 경험 습득
- ✓ 8.13 영산 정면 위급으로 작전 종료, 해체

안강 .기계 전투:

북한군의 수도사단 기습공격(길안)-> 수도사단의 철수 -> 북한군의 산악지역 통과 : 기계 진출 -> 포한
지구 전투 사령부 : 축차적 투입으로 대응 미흡: 후방 침투 교란 작전-> 유엔군의 해.공군 지원 : 북한군의 퇴로
차단 한국군의 총공격 : 당시 최대의 승리

3. 북한의 9 월 공세

낙동강 방어성 구축 -> 북한군의 약화

유엔군 공군. 해군 활동 -> 기동 및 보급에 타격

대구 점령 실패 -> 북한군 전력 한계 판단 -> 반격작전 준비 -> 9 월 공세 계획

북한군의 전투력 증강

제 16,17 기갑 여단

T-34 전차 40 대로 구성

연대 규모, 2 개 대대, 대대당 4 개 중대

*8.23 열차로 도찰

제 9 사단

제 38 경비 3 여단 모체로 창설

7.26 서울 진출, 제 87 연대 인천방어

8.23 천안 – 대전 – 금산 경유 합천 진출

제 7 사단

제 38 경비 7 여단 모체로 창설(7.3 속천)

서울 -> 여수 -> 진주(8.15)-> 의령(8.17)으로 진출

북한군 9 월 공세계획 수립 시 문제점

유엔군 방어선이 좌우로 연결됨으로써 즉 후방 침투 및 포위전술 사용이 곤란하여 정면공격 실시해야하나 정면공격도 불가

- 충격력의 핵심인 전차의 전력상실(대전 전투 이후 전차 파괴 가능)
- 화력 및 기동력 부족
- 유엔군의 공중 우세권 장악으로 공중폭격 위험
- 식량 현지조달 등 병참 능력의 문제로 대규모 병력 집중 곤란
- 일개 지점 돌파를 시도하여 최초 돌파는 성공하더라도 유엔군이 돌파 당한 정면에 예비대를 투입 역습 시도

9 월 공방전 (8.31-9.15) 개요

✓ 북한군 공격 기도

미국 정면: 왜관, 현풍 일대 견제 (1 군단)

한국군 정면: 주공 지향(2 군단)

✓ 미군 정면: 8.31, 23:00 공세 개시

2 공격집단(제 4,9 사단): 낙동강 돌출부 공격 영산 점령

제 1 공격집단 제 6 사단: 함안 진출

✓ 한국군 정면: 9.2 밤 공세 개시(전투력 집중 돌파 시도, 최대 위기)

제 4 공격집단 (제 8,15 사): 영천 점령 대구 3 면 고립 위기

제 5 공격집단(제 12,5 사): 안강, 포항 돌파/ 경주, 부산 위협

제 3 공격 집단(제 3,13,1 사): 대구 공격

✓ 한국군 2 군단, 영천에 침입한 북한군 제 15 사단 포위 섬멸

*한국군의 필사적 방어로 북한군 2 군단 공세종말점 도달

✓ 미군(영산, 마산 서부 지역)

미 해병 임시여단, 미 25 사 북한군 격퇴

✓ 9 월 중순 포항을 제외한 원래 방어선 회복/ 주도권 확보

왜관. 다부동 전투:

북한군의 3 개 사단 총 공세-> 미군의 후퇴 → 대구 위험 노출 -> 미군의 심각한 병력 손실 -> 미 제

8 군사령부 낙동강 방어선 고수 고집 (인천상륙작전)-> 유엔군의 제공권장악→북한군의 후퇴→미 제 8 군의 대구 사수

영천 전투:

북한군의 영천 공격 → 수도사단 철수 -> 북한군의 진격 & 후방 침투 -> 9 월 5 일 새벽 3 시경 북한군의 영천 점령 -> 한국군의 영천 증원 → 북한군 경주 방향 이동 → 9 월 8 일 오후 영천 탈환 -> 북한군을 추격, 포위, 섬멸 → 영천에 방어선 재구축= 낙동강 방어선의 분수령

영천의 전략적 가치

북한군이 영천 점령 시 한국군 1 군단과 2 군단 분리로 전선 와해

대구 - 안강 - 포항으로 연결되는 한국군의 유일한 횡적 병참선 차단

북한군이 영천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출 시 왜관 - 다부동 일대의 한미 연합군 후방 차단으로 낙동강 방어선 붕괴 위험 초래

북한군이 경주로 진출 시 부산에 이르는 동해안 통로 개방으로 부산 위협

*영천은 전략적 요충지로 군사적 가치 높음

*김일성 별 오리 회의(1950.12.21-31)

“우리가 영천을 점령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고, 영천을 실함으로써 패배했다”

영천 전투 개요

기간: 1950.9.5-9.13(9 일간)

투입 부대

한국군: 제 8 사단, 1 사/6 사/7 사 각 1 개 연대, 기타

북한군: 제 15 사단, 제 73 독립 연대, 103 치안 연대

작전 지역 특징(전략적 요충지)

교통의 중심지: 대구(34km), 포항(40km), 경주(28km)

하천의 발달: 금호강, 고현천, 자호천

지형: 북쪽 500m 이상 험준한 지형, 남쪽 비교적 개활지

경과

북한군 15 사단의 돌파 및 돌파구 확장 시고

한국군 8 사단의 저지 및 인접 부대에서 예비 연대 지원

결과

영천 사수

북한군 피해: 사살 3,799 명, 포로 309 명, 차량 85 대, 총기 2 천여 점

*낙동강 방어선 유지에 결정적 기여

영천 전투 경과

- ✓ 9 월 5 일 01:00, 북한군 제 15 사 입암- 영천간 923 번 도로 축선으로 공격
 - *한국군 제 8 사단 기룡산에서 저지 실패 후 퇴각, 육본 조치 : 제 2 군단 8 사단 지휘권 인수 및 영천 담당
- ✓ 6 일 03:00, 북한군 제 15 사 영천 점령, 경주 방면 임포동 까지 진출, 한국군 제 7 사단 5 연대에 의해 저지, 제 8 사단 공병 대대 영천읍 1 차 탈환
- ✓ 7 일 야간,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하여 영천 재 탈취, 2 개 연대가 임포동 방면으로 한국군 제 5 연대를 압박하며 경주방면 진출
- ✓ 8 일 한국군 제 2 군단 예비인 제 6 사단 19 연대가 영천 재탈환
- ✓ 9 일 한국군 제 8 사단 10 연대를 원복시켜 임포동 지역 투입, 북한군 진출을 저지하고 좌측 21 연대가 견부 고수(총 2 개 연대 반격)
- ✓ 10 일 영천 일대의 북한군 완전 소탕 후 추격, 12 일에는 최초 방어선 회복

영천 전투 성공 요인

- ✓ 지휘관의 적시 적절하고도 과감한 지휘 결심
 - *군단 전투지경선 및 지휘 관계조정(제 1 군단 8 사단 -> 제 2 군단)
 - *제 2 군단 예비 연대 전환: 11 연대 (제 1 사단), 19 연대(제 6 사단)
- ✓ 전투력 절약과 집중 운용

*동해안 부대를 원복(8 사단 10 연대) 시켜 전투력 집중

- ✓ 적시 적절한 증원부대 투입
- ✓ 돌파구 측방의 견부 확보와 돌파구 첨단의 저지
 - *고지대 확보가 승리의 원동력(영천 북방 8 사 21 연대, 8 사 우측 6 사)
- ✓ 북한군의 측방 강타와 병참선 차단(8 사단, 신편 7 사단)

북한군 9 월 공세 제한 사항

- ✓ 북한군 일점양면 전술 사용 제한 : un 군 방어 전선 좌우 연결
- ✓ 충격력인 전차 위력 상실, 화력과 기동력 부족: 아군의 3.5rkt 나 네이팜탄 등 신무기 등장
- ✓ 제공권 상실로 병력집중 시 용단 폭격 위협 노출
- ✓ 병참능력 제한으로 대규모 병력 지원 제한
- ✓ 일개지점 돌파 시 유엔군의 예비대 투입 및 역습으로 전과확대 불가
- ✓ 북한군 공격 저지, 작전 한계점 도달 및 전투력 운용
 - *북한군 전투력 급격히 소모, 전투력 집중 실패
 - *보급물자 부족: 자체 경제력이나 생산능력 문제
 - *보급시설 파괴, 병참선 신장/ 병참선 차단
 - *무리한 독전 감행으로 전투 의욕 상실

낙동강 방어선 전투 성공 요인

유엔군의 군사원조 증대 -> 연합군 전투력 급격 향상

연합군의 제공, 제해권 장악 -> 북한군 병력 증원, 병참 지원 차단

낙동강(천연 장애물)의 효과적 이용

내선작전 잇점 이용, 기동예비대 적시 투입-> 전투력 우세 달성

연합군이 화력과 기동력 우세 -> 돌파 지역에 대한 전투력 집중 가능

진지 사수의 정신력 증대

북한군 전 전선 균등 배분 공격 -> 전투력 분산 효과

작전한계점

- 공격 또는 방어 작전 부대가 전투력의 저하, 전투원의 피로, 긴요 물자의 결핍 등으로 인해 더 이상 작전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태 및 그 시기
- 공격한계점 초과시 : 공격속도 저하, 역습 또는 패배

작전한계점 예방 대책

공자

계획 단계: 능력에 맞는 목표 설정, 작전 단계화, 전투력 재 보충 계획

시행 단계: 전투력 손실 최소화, 군수와 조화된 작전, 정보능력 향상

작전 한계 봉착 시: 급편 방어, 차후 작전 준비

방자

공자 병참선 차단, 화력/ 마찰 증대로 전투력 소모 강요

방자 전투력 증강

북한군 9 월 공세의 영향

개전-7 월말 : 북한군의 압도적 우세 -> 8 월: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력 증강 -> 8 월 말 : 전력의 역전, 북한군의 한계

북한군의 수뇌부는 한계 인정 x (총 공세 실시) -> but 낙동강 방어선 돌파 실패 -> 북한군의 패퇴의 길